

2006년 한국 문화예술계를 휩쓴 키워드는 단연 ‘아시아’일 것이다. 이 아시아 붉은, 단지 유행처럼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문기에 앞서, 아시아를 문화적으로 성찰해내고 교류를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왜 아시아인가?’라고.

# 왜 아시아인가

## 문화적 선택, 문화소통, 그리고 연대

글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중문과 교수



### 1. 영롱한 눈빛의 기억

지난해 말 베이징, 도시 곳곳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는 건물들 사이로 자동차와 자전거가 뒤엉켜 혼잡을 이뤘다. 초점을 잃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당도할 곳 외에는 관심 없고, 중국경찰인 공간 또한 추운 거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는 듯 나타나지 아니하고, 북경현대차 택시 안에 앉아 있는 나 또한 물끄러미 반복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만약 초점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떤 풍경일까. ‘아Q화’되는 오늘의 그들이 아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그들을 상상하는 일은 느닷없지만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택시를 타기 전 나는 중국사회주의인민공화국 건설 초기에 발행된 신문자료와 대자보, 마오쩌둥의 붉은 책자들, 혁명가곡 음반들을 잔뜩 구해 그 빛나던 시절을 두 눈 가득 담아왔기에. 물론 이를 두고두고 꺼내볼 요량에 가슴까지 설레던 터였다. 그리고 베이징에 오기 전 상하이에서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 형성과정 중 국민화와 문화문제’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소개된 후시엔(戶縣) 농민화의 독특한 투시법과 등근 선색(線索)을 그려내는 화면 속 사람들의 영롱한 눈빛에 잔뜩 매료되어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서로를 바라보거나 함께 앞을 향하고 있는 시선에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통해 대치한 무표정과 앞다툼의 욕망을 찾아볼 수 없음을 물론이다.

흐려진 눈빛과 생존경쟁, 이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과 자본주의에 대한 개방 30년의 후과(後果)인가. 빈부격차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조화사회(和諧社會)가 외쳐지고 농촌진흥계획이 이뤄지고 있다지만, 저 초점이 흩어진 눈빛에 어떻게 그 영롱함을 되찾아 줄 것인가.

왜 아시아인가. 여덟 해 전에도 나는 베이징에 있었다. 그때 42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달리며 ‘왜 동아시아인가’라는 제목으로 350매에 달하는 긴 원고를 <실천문학>에 보내고 미련 없이 내몽골로 내달았던 기억이 난다. 밤기차에 올라 열두 시간을 달려간 곳. 황허강과 대지가 만나 지평선과 수평선을 모두 이뤘고, 땅끝에서 땅끝으로 미리내는 내리닫았으며, 별뚝별이 똑똑 머리 위로 떨어지고, 명징한 하늘과 작은 호수가 꼭같이 쪽빛이었다. 무엇보다 거기엔 초원에

펼쳐진 낮은 언덕과 늘씬한 몽골말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몽골어가 표음문자로 발달한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거침없이 말을 타고 소리지르면 저 편까지 매아리 치며 가슴까지 전달됐을 언어들. 대륙의 중원천지에서는 높고 넓은 산과 바다 같은 강들 때문에 소리의 소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원천지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필요했을 시적 통찰력과 문자의 통일, 그 통일된 한자를 전유하고 장악했던 사대부의 문화적 소통에 의해 중국의 봉건통치가 가능해졌고 수 천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내몽골에서 잠긴 상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목과 농경 그리고 바다살이로 유지돼 온 고전적인 우리네 혹은 우리 주변부 삶들. 거기엔 이제 자본의 논리가 관철돼 있고, 사람들은 모두 임금노동자로 전락했다. 대륙 중국의 8억여 명의 농민들이 민공으로 도시를 떠도는 현실을 통해, 이제 농민조차 무토지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을 요구당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베이징대학 주변에는 손수레들이 즐비했다. 사과 몇 알부터 각종 채소까지 수레에 얹어놓고 파는 농민공들은, 그 수레 위에서 가지볶음 덮밥을 질리지도 않고 매일 먹고 있었다. 그나마 도시니까 입에 밥을 넣을 수 있다는 그들. 내몽골의 평원 위로 바람차게 말달리던 유목의 주역들이 이제 관광객을 위해 한 달 내내 일하고도 겨우 100위안(한국 돈으로 1만 3,000원 정도)을 받으며, 타이완 사장의 고용노동자로 아침마다 말을 끌고나와 팁을 바라며 하루를 살아낸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라는 말뚝(화두)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동아시아적인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즈음의 상념은 꼬리에서 꼬리를 물다 한 곳으로 모아졌다. 냉전 시기 분단된 동아시아와는 다른, 보편화된 현실에서부터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삶’이라는 말이 가능해진 것.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화’라는 고전적인 말로 개념 짓는다면, 아직도 그런 말을 쓰나는 거부감이 앞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즉,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의해 우리 삶이 규정지어지는 이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계급혁명이라는 해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거기서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인가. 그것은 자본의 전지구적 확장이 일국단위가 아니라 지역체제나 지역블럭화를 추동하고 있으므로, 그리하여 지역이 생산의 불균형 구도를 가동하며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경을 초월한 지역 단위의 삶이 세계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시아를 생각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응체계를 고민하는 작업이다.

9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현실 사회주의 실패 이후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치공동체의 개념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는 페리 앤더슨의 말대로, 자본의 바깥이 없는 세상에서

복수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원적이고 평등한 문명세상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라는 지역고리를 찾아낸 것인데, 어떤 문명사 전환의 필요성을 놓고 인문학적 상상력이 내려를 편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를 병탄했던 침략적 아시아주의에 대해, 총력전체제로 아시아를 경영해왔던 식민의 경험이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대안적 상상력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을 참조체계 혹은 사상자원으로 진정한 탈식민의 극복문제를 동아시아적으로 사고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 의도와 달리 제국적 질서와 닮은꼴, 동형의 요소를 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반면은 끊임없이 주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주도 상상은 자신을 주체화하기 위해 주변을 타자화시켜 갔던 서양과 동양의 오리엔탈리즘, 아시아에서의 동형구조 재생, 전전 일본과 아시아와의 관계상 및 우생의 중국을 꿈꾼 근대 중화민족주의 신화 속에서 여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오히려 전전과 전후 아시아에서, 함께 평등한 세계를 구도하며 새로운 관계를 꿈꿨던, 그리하여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며 갔던, 국경을 넘나들던 연대성의 발현들에 눈길을 둔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새로운 세상인 중국 연안의 붉은 대지를 찾아나선 김태준의 연안행, 이를 기꺼이 도와준 중국혁명역량의 아름다운 동행, 식민지해방전선이 대륙적 개진을 목도하며 태행산맥의 근거지를 찾아 떠났던 김사량과 중국 팔로군 의로운 형제애. 이런 동지적 만남을 역사화하고 아시아적 연대의 발판으로 삼지 않는 한, 제국의 동형구조를 파탈하기란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냉전시기 아시아에서 냉전체제에 편제된 양측 모두가 민족화로 자기중심을 강화해나가며 아시아 안에서 아시아끼리 대립과 갈등을 거듭했는데, 이제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취 그것이 남긴 파국을 넘어설 ‘더불어 살기’의 형질을 찾아내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토대로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八路軍和義勇軍相互大大的 팔로군과 의용군 단단히 좋아해

爾們那我們那兄弟那一樣的 니데나위데나 형제나 한가지

犬瀋槍站一起共同打日本 둘이서 총을 메고 일본 족치니

鬼子害酷了了了的柔 왜놈이 아이쿠 데이쿠 도망이 갔다구...<sup>1)</sup>

1) 김사량, 김재용 편주, 《노마만리 驃馬萬里》, 실천문화사, 202쪽.

그런데 한국의 대안적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담론이 사상적 거처로 터하고 있는 다케우치 요시미는 어떤가. 그는 동학혁명이 일본낭인들의 도움으로 이뤄졌으며 그러한 만남을 아시아연대의 기초로 삼자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일본에 의한 하나의 아시아를 꿈꾸며 대동아전쟁에 스스로

참전하여, 것처럼 애모하던 중국 대륙으로 출동하기조차 했다.

역사는 만들어졌다. 세계는 하룻밤에 변모했다.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감동에 전  
율하면서 무지개처럼 흐르는 한 줄기 빛의 행위(行衛)를 지켜본다. 가슴으로 치밀어오르는,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격발 (...) 12월8일, 전쟁선포의 대명이 내린 날, 친근한 눈으로 동  
포를 바라보았다. (...) 건국의 역사가 한 순간에 찾아오니 (...) 우리들은 지나를 사랑하고  
지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부름 받아 병사가 될 때 용감하게 적과 싸울 것이  
다. 그렇지만 앓으나 서나 우리들의 책임은 중국을 놔두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정  
된 자기를 동해해방의 투쟁결의에 의해 다시 부정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는 올바로 정위  
된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을 회복했다. 동이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해방시키기 위해 오  
늘 이후 우리들은 우리의 직분에서 미력이나마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나를 연구하고 지  
나의 진정한 해방자와 협력하고, 우리 일본국민에게 진정한 지나를 알릴 것이다. 우리들  
은 사이비 지나통, 지나학자 및 절조 없는 지나방랑자를 내쫓고, 일본과 지나 양국민년의  
공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우리 자신의 기개 없는 혼미를  
보상하고, 영광스런 국민의 책무를 걸머지려 한다. (...) 중국문학연구회 일천 명 회원 제군.  
(...) 우리의 세계는 우리들의 손으로 눈앞에서 축조되는 것이다. 제군, 우리 새로운 결의  
하에 싸웁시다. <sup>2)</sup>

그 전쟁으로 나아가던 다케우치와 중국문학연구자들의 눈빛은 정말 빛나고 있었을까. 전후 다  
케우치는 자신의 참전문제를 참회했고, 그로써 일본의 근대환상을 성찰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위의 문제는 다케우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시아지역주의를 주창하는 이들  
도 두고두고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 2. 참회와 성찰로 여는 아시아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범주 설정과 상상이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실물경제적인 상상은, 창비의 동아시아론 제기로 인문학계에서 시작된 대  
안담론적 추상수준을 넘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뤄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학계 역  
시 이런 대세를 추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문학자들의 가당찮은 몽상이라며 동아시아 담론을 끊임  
없이 백안시하던 사회과학자들도 동아시아에 어떻게든 접속하고자 발을 동동 구르거나 혹은

2)  
竹内好, 《大東亞戰爭と吳  
等の決意(宣言)》. 이 글은  
원래 1942년 1월에 발행  
된 《中國文學》제18호 권  
두에 무서명으로 발표됐  
고, 《日本と中國のあいだ》  
의 편집부기에 재수록됐다.  
저자의 일기에 의하면 이  
선언은 12월13일 同人會  
에서 발표 후 16일에 집필  
하였다. 《竹内好全集》14  
권, 294-298쪽.

3)  
이수만, "1, 2차 넘어 3차  
한류 지향해야", 《연합뉴  
스》, 2006. 9. 19.

권력과 자본의 '아시아 상상'에 정당화 담론을 대주느라 진담을 뺐다. 전 사회가 아시아를 놓고  
이렇게 들쭉이는 것은 한류의 파고가 높은 탓도 크다. 그러나 가수 비는 아시아를 넘어 맨해튼  
과 라스베이거스로 가지 않았던가. 자본의 상상은 아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비대칭  
적 구도를 강화하며 타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아류 제국의 상상과 기획을 질타하기에는 나름대  
로 절박함이 있다는 점에서 그저 굶어대는 것만으로는 무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곤경이 있다.

1, 2차 한류를 넘어 3차 한류를 지향해야 한다. (...) 1차 한류는 소극적이고 오래 가지 않  
는다. (...) 외국과의 합자회사를 통해 키운 콘텐츠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본 및 시스템, 중국의 13억 시장과 자원, 한국의 CT가 결합  
된 콘텐츠를 만들어 3분의 1씩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아시아 마켓이 뭉쳐야 아시아 1  
등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sup>3)</sup>

문화자본의 생존논리로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위의 주장은, 전지구화와 지역화의 현실에서 국  
민국가와 지역의 경제현실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고민하는 것은 동아시아가 그들의 동아시아, 그들만의 공조 리그로 거대한 문화시  
장 혹은 시장을 통합하는 와중에 있는 현실에서 '과연 새로운 아시아·동아시아를 문화로서 구  
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확실히 한류는 내수시장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워진 한국의 문화산업이 아시아 진출을  
활로로 삼고,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아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아시아의 광범한 기층을 문  
화소비층으로 통합해가고 있는 표증이다. 그러나 일류(日流)가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아메리카  
나이제이션을 본뜨며 혹은 그것과 손잡고 저패나이제이션으로 아시아를 몰아갔고 또 몰아가고  
있듯이, 시장의 매우(梅雨)맛을 이미 봐버린 한류 또한 코리아나이제이션의 불온하거나 절박한  
욕망을 펼쳐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가속이 붙어버렸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국적 삶을 저주  
하는 혹은 아메리칸드립으로 이 땅을 탈주한 머나먼 타국의 디아스포라들까지도, 한류의 돌연  
한 파고에 어리둥절하며 감격한다. 중국학자의 말대로 한류는 한국이 자신의 용립(聳立)을 아  
시아와 세계에 고하는 정치선언문일 수도 있고, 중심부의 배제·착취의 논리를 피눈물로 익히  
며 자본의 세계화 각축 속에서 어렵사리 일궈낸 문화생산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이는  
냉전시기에 탈식민 과정을 강요당한 결과 분단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재될 수밖에 없었던,  
'아메리카'로 상징되는 서구자본주의 문화와 혼종교배에 의한 잡종문화의 역동성이고, 또 근대

적 국민국가 성립과정에서 표출된 한국문화 구성과정의 특수성이기도 하다.<sup>4)</sup> 그런데 그 절박감은 박정희가 반공 아시아의 수장을 꿈꾸며 마닐라로 날아가고, 급기야 베트남으로 젊은 맹호들을 실어보냈던 그 무도한 ‘절박감’은 아니던가.

우리는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욕망을 가시화해낸 것의 되받기,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 문맥 속에서 한류란 무엇인지, 그들은 왜 한류를 선택하는지를. 아울러 한류의 선택적 수용과정에서 드러나는 해당 국가의 문화상태와 문화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한류는 동아시아 현실사회를 이해하는 경로며, 가까운 공간범주의 사람들과 새롭게 만나는 계기와 방법을 찾아가는 문화적 회통의 기제인 까닭이다. 그래서 문화로서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의 새로운 정합을 몽상하는, 동아시아를 타자로 대상화하려는 모든 욕망들의 그 ‘절박감’까지도 일종의 사상문화자원으로서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절실하다. 일본 문화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한류읽기와, 한류를 ‘일식’으로 소비하는 일본여성들의 ‘주체적이고 경제적인’ 문화소비, 그리고 일식한류<sup>5)</sup>의 문맥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는 헛헛하다. 그들은 이미 식민지 시대의 병영적 아시아주의를 거쳐 탈식민 시대의 월경하는 아시아를 경험했기에 이미 많은 논의를 축적해놓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정치적 아시아 지역화의 논점으로 가로지르며 국민국가의 경계를 횡단하는 문화의 현상 속에서 문화아시아, 아시아 지역화의 비판적 상상을 나름대로 가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하늘 아래 오늘도 ‘천원 한류’로 고된 노동을 달래는 서글픈 하루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야말로 다른 아시아, 노나메기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주체형성과 경로를 놓고 불온하거나 절박한, 그 솔한 아시아 몽상들에 이데올로기적 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정말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상상은 한반도의 평화적 살이를 위한 민족주의에서 발로한 것일 수도 있다. 다케우치처럼 중국주의자여서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다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일원으로 귀환케 하는, 그 나란한 연착륙이야말로 미국과 일본이 관철하는 패권적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는 중요한 고리임을 강조하며 그 중국의 사회기층적인 아시아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도저한 중국사랑의 발로일 수도 있다. 혹은 호 아저씨(호치민)를 만나기 위해 일요일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하노이의 그 가무잡잡하고 키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이댔던 총부리, 그 베트남들의 귀를 잘라 꿰어 목에 건 사진을 미제 TV와 함께 조국에 부치던 파월장병용사들, 그들이 무서워서 불사른 전의와 경제적 안도, 돌이킬수록 참담하지만 피식민국민으로 황국신민화되기까지 그렇게 당하고도 제2등 국민을 꿈꾸며 남양만으로 징병을 나갔던

4) 백원담, “인타-아시아 문화 연구와 한국 문화연구, 그 정치적 이론적 그리고 역사적 선회”, 《문화와 사회》, 제3집, 2007.

5) 毛利嘉孝 編, 《日式韓流》, 세리카書房, 2004

6)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한국과 이웃나라들》, 살림출판사, 1995, 102쪽.

조상남정네들, 조그맣지만 당차게 제국에 대응하던 동남아의 그 영롱한 눈빛들을 마주했던 역사적 순간과 그럼에도 겨눴을 총부리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두 무릎을 꿇는 늙은 참회와 성찰과 사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또한 두 세기 넘도록 아시아가 겪어온 굴욕과 거덜나기의 역사적 병마를 함께 넘는 진정한 계기를 잡지 않으면, 동형의 오리엔탈리즘을 들이대며 서구가 아시아에게 혹은 아시아가 아시아에게 행한 유린의 과거와 오늘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결코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나메기 공존의 미래는 열릴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일 수도 있다.

### 3. 문화의 역전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한 해 전. 한반도가 제국주의와 아시아의 주도권 쟁탈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영국왕립지리학회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찾아왔다. 마녀사냥의 위협을 무릅쓰고 길게 굽이치는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배를 저어가며 중국의 광물 자원과 중국적 삶의 양태를 꼼꼼히 눈에 넣어둔 뒤였다. 비숍은 한국에 와서도 배를 댔다. 바로 한강에. 북한강에서 남한강으로, 중국에서도 그러했듯이 남정네 중북 하나 데리고, 중국의 중북은 자주 투덜거렸는데, 조선의 그는 고분고분 참으로 짹짹하기까지 하다고 했었다. 역사상 우리 중 누가 한강에 배를 띄우고 때로 수면이 낮으면 배를 끌고서라도 한강을 종횡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제국의 시선이 한강의 산수에 예리하게 쫓혔을 때, 수탈방법과 수지타산의 주판알은 이미 섬세하게 튕겨졌을까.

동학당(반도들, 혹은 무장 개혁주의자들)은 큰 만의 남쪽에 인접한 지역에서 유력했다. 그것은 구래의 상태에 대한 불만과 개혁에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 내가 아는 한, 이 지역은 광물이 풍부하지는 않다. 지질학적 구성으로는 석탄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들어 보지는 못하였다. 구리와 철은 북쪽 지류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제한된 양이 채굴되고 있다.<sup>6)</sup>

한류의 물결이 아시아에 가닿았을 때 아시아로 간 우리의 시선을 위에 투영해보자.

그 동안 베트남에서는 화장을 부르주아의 허영으로 보는 공산주의 이념과 연간 화장품, 옥실용품 지출이 1인당 4달러에 불과한 소득수준 탓에 싸구려 중국 밀수품 외에는 화장

품이 없었다. 시장이 아예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LG는 이에 따라 개별 제품 광고보다 시장의 외형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베트남인이 떠분한 국영방송에 식상해하는 점에 착안, <내 마음을 뺏어봐>·<도시남녀>·<의기형제> 등 한국 드라마의 판권을 현지방송에 사주고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남주·장동건 씨를 전속 모델로 기용했다. 그러자 거센 한류열풍에 묻힌 베트남 신세대는 미모의 한국 텔런트를 닮기 위해 드라마 앞뒤에 광고가 붙은 LG화장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조사기관 테일러 넬슨의 랄프 매티스 영업소장은 “베트남인이 화장품에 대한 시각을 바꾼 것은 전적으로 LG 덕분”이라고 말했다.<sup>7)</sup>

7)  
 <경향신문>, 2004. 4. 22.

아무리 아시아에서 대등한 관계지향을 역설하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관건이라고 계속 강조해도, 한류를 보는 세간의 아시아에 대한 눈길은 하나에만 혈안이 돼 있다. 돈벌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흡스봄이 이렇게 말했다.

콜럼버스가 카리브의 한 섬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시작된 문화 간 만남 (...) ‘1492’년은 유럽 중심 세계사의 시작이자 (...) 유럽망상증의 시작을 뜻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역사이다. 스페인·포르투갈·영국·프랑스 등은 오래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 지배를 포기했다 (...) 스페인과 영국 정도가 과거에 아메리카를 정복했던 덕에 그들의 언어를 세계언어로 만들었다는 데서 이득을 보았을 뿐이다. (...) 그러나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의 또다른 직접적인 결과들은 (...) 유럽과 다른 대륙들에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 아메리카가 정복당했던 원인이었던 금과 은보다는 옥수수가 남유럽을, 감자가 북유럽과 동유럽을 정복하고 금기야 담배와 코카콜라가 이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8)</sup>

8)  
 에릭 흡스봄, 김동택·김정  
 한·정철수 옮김, <저항과  
 반역 그리고 재즈>, 영림카  
 다닐, 2003.

문화의 역전은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든, 피정복지로부터도 일어나 올 수도 있으며 그것이 훨씬 더 지배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래서 조심하자. 이 글을 여기서 이렇게 끝맺을 수는 없는 일.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가 얘기해보면, 중국에서부터의 문화 역전인 화류는 어떻게 올까. 휘귀(火鍋, 중국식 샤브샤브)나 샤오롱바오(小籠包) 같은 중국음식이나 영화를 운운하며 호들갑들이지만 내가 본 것은 그게 아니다. 마오쩌둥이 장카이스의 국민당에 쫓겨 삼십육계 줄행랑쳤을 때, 이만 오천 리의 길을 함께 붙들고 간 사람들이 모두 어른들만은 아니었다. 어린 홍군들도 그 먼 길을 싸우며 갔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왔다. 애니메이션으로. 그것이 왜 중요

한가. 그들이 싸우기 때문이다. 그들의 적은 사회주의 소련과 중국 등의 괴뢰세력도, 비늘 달린 것들에게 평생 당해온 원한으로 트리튼 대왕의 바다세계를 어둠으로 몰아간 다리 여덟 달린 연체류 마녀문어(윌트 디즈니의 <인어공주>)도 아니다.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 제국의 군대, 그리고 국민당이다. 이렇게 세계평화를 위해서,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 지구를 지키는 전사로 나선 이 아이들의 주적은 누구인가? 바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그 주구인 미군과 일본군인 것이다.



<작은 홍군들의 장정기 小紅軍長征記>

베트남의 경제가 활황이라고 한다. 중국보다 느리긴 하지만 베트남은 아시아에 어떻게 귀환할 것인가. 그들이 월남전으로 만화영화를 만들면 거기서 적은 누가 되는가. 어른 아이할 것 없이 그들 베트콩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우리가 된다. 그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니 우리가 덮고 싶을수록 오히려 더 또렷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그렇다면 상업주의 문화상품이라 해도 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문화의 역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또 다른 냉전적 아시아주의가 타전하는 문화 역전의 신호가 벌써부터 귀를 때린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 그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의 마지막 기승을 앞보아서는 곤란하다. 서유럽 다음으로 미국이 처음 아시아를 꿈꿨을 때, 아시아-중국-일본-조선을 ‘태평양의 신부’로 명명하며 신랑 미국의 품에 다소곳이 안겨오라고 했던 슈펠트(Robert W. Shufeldt) 제독의 말<sup>9)</sup>은 역사적으로 실현됐고 지금 또 새로운 현실로 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가공할 관철력, 아시아를 태평양으로 도열시키는 그 관장력에 어떻게든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고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시아를 말하는 이유, 그것은 아시아가 나란히 연대해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살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과 자본 위주의 거대한 아시아 공조에서, 아시아가 아시아를 겁탈 혹은 수탈하는 대상으로 삼고 민족이 민족을 거덜내는 이 도저한 우승열패의 신진화론의 세

9)  
 Bruce Cum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W.W Norton &  
 Company,  
 1997, 106쪽.

계에서, 지역화와 시장적 아시아주의에 절명당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괜찮은 거울을 찾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가 다원적 공생법으로 서로를 붙들고 바로 코밑에서 미국식 패권주의에 비수를 꽂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홍콩의 반 WTO 연대투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시아가 아시아를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의미를 공유해야 한다. 영구추방과 실직 위험을 무릅쓴 홍콩 이주노동자의 강렬한 투혼과 한국의 투쟁단이 만났을 때, 그들이 맞잡았던 따뜻한 손길과 뜨거운 가슴의 결의, 그 빛나던 눈빛의 교감에서 어떤 희망의 영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홍콩·대만에 이어 일류를 대체하며, 한류의 탈정치화된 문화 상품이 아시아 유통의 문맥에서 소비됨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로 상상되던 ‘아시아다움’의 허무맹랑함을 여실히 폭로해주면서, 아시아가 서로의 이면 혹은 정면과 반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물론 짧지 않은 상업적 문화유통의 역사성이 어떤 의미에서든 소통과 이해의 저변을 형성하며 상호접근을 용이하게 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실 오늘의 아시아 관계의 질적 정도는 그처럼 낮은 수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투쟁단과 홍콩시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다른 아시아와의 가리워진 횡적 관계성들을 놓치지 않고 잘 들춰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가 서로의 내면으로 육박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미미하지만 소중한 길목의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거기엔 아시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세계의 진보세력, 그 광범한 반세계화의 결기가 진정한 세계주의의 힘으로 그 싸움에 굳건히 결합됨으로써 다른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이 새겨질 수 있었다. 그것은 아시아가 침략적 아시아주의의 잔영은 물론 냉전적 아시아, 그 분단 아시아의 역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향이며 이념이다. 지역주의는 세계주의의 구체적 발현태라는 것을 이데올로기 전선에 치열하게 설치해내는 것, 바로 지금 아시아를 말할 때 가장 시급한 일이다.



글쓴이 | 백원담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중문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문화공동체포럼 기획집행위원장, 중국 상해대학 해외교수, 〈진보평론〉·〈황해문화〉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중국문화론》 등의 저서와 편저〈인문학의 위기〉, 공편〈중국철학산책〉·〈민중문화운동론의 실천론〉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살아간다는 것(活着)》·《색동저고리 입고 꼬까신 신고》가 있다.